10139519

재미한인 이민문학에 반영된 自我의 두 모습*
-영문소설 몇 작품을 중심으로 -

조 규 익**

목 차

Ⅰ. 시작하는 말
Ⅱ 재미한인들의 특성과 이민문학
Ⅲ. 개인적 자아와 보편정서
Ⅳ. 맺음말

Ⅰ. 시작하는 말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하와이 사탕수수농장의 노동이민으로 시작된 미주 이민사 또한 새로운 세기를 맞게 되었다. 100년을 단위로 넘어가는 세기의 구분이 그리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100년이란 기간은 인간의 육체적·심리적 지속의 한계선이다. 100년이면 3대가 출현할 수 있는 기간이고, 개인이나 집단을 막론하고 3대에 이르면 그 나름대로 정착의 단계에 들어서게 마련이다. 대체로 할아버지 대에서 창업을 하거나 발을 붙이고, 아버지 대에서 수성을 하게되고, 손자대에 이르면 토대를 확실히 다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주 이민 1세기는 한인들이 미국 땅에 도착하여 자신들의 토대를 확실히 다져놓은 기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자취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기록들은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이 시점에 초창기 재미한인들의 삶이나 그 기록물로서의 문학을 살펴보는 작업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 본 논문은 1999년 10월 28일 숭실대 인문과학연구소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것임.
** 본교 국문과 교수

본 발표의 대상인 문학작품은 은유나 상징 등 이른바 간접적이고 입체적인 기법을 사용한 기록이면서도 직접 기록들 못지 않게 풍부한 삶의 자료나 증거들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보편적일 수 있는 의식세계를 추적하는 데 문학만큼 효율적인 대상은 없다. 이민문학에 들어있는 이민자들의 공통경험이야말로 우리가 밝히려는 의식세계의 극적인 단서일 수 있는 것은 이런 점에서 타당하다.

한인작가들이 그려내고자 한 주요 대상은 1세대의 한인들이다.[1] 그들은 다수의 노동자들과 소수의 지식인들로 나뉜다.[2] 당시에 그들이 조국의 생활현장에서 익힌대로 이민지에서 새로이 창작한 각종 노래들과 주로 지식인들이 국문이나 영문으로 창작한 산문(특히 소설, 희곡) 등이 많이 남아 전해지고 있으며, 지금도 이민 2세, 3세 문인들이 창작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 모두에 작자 자신들 혹은 이들이 대표하던 한인이민들의 자아[3]가 반영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본 발표에서는 그 가운데 한인이민들의 자아를 잘 그려냈다고 생각되는 세 작가의 영문소설 네 작품을 대상으로 그것들에 표상되어 있는 자아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이 점은 해방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발표자는 작년 현지에서 여러 명의 2, 3세대 현역 문인들을 만난 바 있다 그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던 공통된 소망들 가운데 하나는 자신들의 부모 혹은 조부모 세대인 1세대 한인들의 비참하면서도 극적인 삶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일이었다 비록 자신들의 현재와 미래만을 대상으로 작품들을 쓴다해도 그 출발은 1세대 한인들의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점은 향후 이민문학 연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흥미로운 사실로 보인다

2) 상인이나 노동자의 신분으로 1896~1905년 사이에 7,000여명의 한인들이 하와이로 건너갔고, 1921~1940년 사이에 유학생 등 250여명의 한인들이 도미함으로써 지식인 계층의 주축을 이루었다<Choy Bong-youn *Koreans in America* Chicago Nelson Hall, 1979, p 239> 지식층 이민들 가운데는 학생들 외에 정치적 도피자들도 더러 있었고, 이들이 상당기간 한인 이민사회의 정신적 지주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여기서 '자아'란 작품에 반영되어 있는 작자 혹은 화자의 본체를 말한다. 다시 말하여 그것은 *personal identity* 로서의 '*self*', 즉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선언하는가" 하는 본질적 자기 규정과 직결된다 사회적 기준이나 환경적 조건의 내면화, 시간과 공간이 조성하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통일되는 행동의 양상 혹은 그에 관한 의식 등 심리학적 자아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문학작품을 통해서 자아를 살펴보려고 할 경우, 작자나 화자는 작품 속의 다양한 인물(특히 주인공)로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바 그러한 인물들이 드러내고 있는 특징들은 被寫體로서의 작가에게 숨겨져 있던 속성들일 수 있다 작품들을 통하여 작가의 내면적 본질이나 그가 속해있던 시간과 공간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II. 재미한인들의 특성과 이민문학

미국은 본질적으로 이민들의 나라이고 한인들도 그들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초창기 이민들의 경우 대부분 불가피한 상황에 의한 타율의 소산이었다는 점에서 다른 소수민족들과 구별된다.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기본적인 삶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택할 수밖에 없었던 길이 이민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1세대 이민들의 경우는 자신들을 '移民' 아닌 '流民'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정상적인 의미의 이민일 경우 자신들이 도착한 곳 *host country*에 성공적으로 정착·동화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인 이민들이 지니고 있던 최대의 염원은 모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민의 땅이 잠시 체류하는 곳이고 돌아가야 할 모국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현실적으로 그러한 귀환이 쉽지 않은 경우, 누구든 반드시 정체성의 위기*identity crisis*를 겪게 마련이다. 미국 이민 1세대가 그 뒷 세대들에 비해 정체성의 위기로부터 오는 고통을 더욱 더 심각하게 겪어왔다고 할 수 있는 것[4]도 이런 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이와 같이 초창기 재미한인들은 일시적 체류자 의식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으며, 자연스럽게 자신들을 유랑민과 정착민의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들 즉 경계인*marginal man*[5]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그만큼 경계인적 자아인식은 초창기 재미한인들의 집단 무의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6] 타국에 머물면서 자신을 체류자로 생각할 경우 그는 단순한 여행객이거나 망명자일 뿐이다. 특히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 다른 나라에 타의적으로 밀려나 잠시 머물 경우 망명자로서의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7] 한국인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아시아인들은 스스로를 일시적 체류자로 생각하므로써 결국에는 미국의 주류사회에

---

4) Takaki, Ronald *Strangers from a Different Shore A History of Asian Americans* Boston.Little, Brown & Company, 1989 p277.

5) 경계인의 의미에 관해서는 Everett V. Stonequist. *The Marginal Man* New York.Russell & Russell, 1961, pp2~3 참조 이 책의 저자는 개개 이민자가 원래의 사회나 옮겨가는 사회 가운데 어느 곳의 멤버도 될 수 없다고 한다

6) 물론 경계인 의식은 그들의 2세 혹은 3세에 해당하는 현재의 *Korean-American*들에게도 지배적인 의식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7) 이 점은 Younghill Kang의 *East Goes West The Making of An Oriental Yankee*(New York.Charles Scribner's Sons, 1937)의 p 74(We floated insecurely, in the rootless groping fashion of men hung between two worlds With Korean culture at a dying gasp, being throttled wherever possible by the Japanese, with conditions at home ever tragic and uncertain, life for us was tied by a slenderer thread to the homeland than for the Chinese Still it was tied Koreans thought of themselves as exiles, not as immigrants *밑줄은 인용자)에 잘 나타나 있다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게되었다는 견해[8]도 이런 점에서 타당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계인적 의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이 의식은 그들이 상당기간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에만 골몰해 있었음을 극명하게 드러낸다.[9] 이와 같은 초기 한인들의 의식은 앞으로 언급할 Younghill Kang의 *The Grass Roof*[10]나 *East Goes West*,[11] Ronyoung Kim의 *Clay Walls*,[12] Gary Pak의 *A Ricepaper Airplane*[13] 등 대표적인 소설들을 포함한 많은 작품들에서 구체화됨으로써 당대 한인 이민문학의 개인적 혹은 집단적 자아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재미한인들은 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현실적으로 이들이 이민지에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신산한 생활고가 그들로 하여금 이민지에 정을 붙이지 못하게 한 첫 요인이었다. 견딜 수 없는 생활고를 피해 떠나온 조국이지만, 새로운 세계에서 맞이한 생활 또한 구세계에서의 그것 못지 않을 정도로 괴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만리타국에서 죽는 것보다는 고국에서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누구나 갖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망국의 한이나 실향의식도 이들을 함께 묶어주는 정서적 유대의 끈이었다.[14] 망국의 한을 풀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적 욕구는 이민지에 정착해서 '다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새로운 선택의 불가피성을 능가할 정도였다 그런 만큼 미국이라는 신세계는 언제나 이들에게 손님의 자격으로 '방문한' 땅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 곳이었다. 귀향의 욕구는 망국이나 실향이라는 부정적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이었다. 민족의 이름 아래 단결해야 한다는 과제를 이들이 수시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국체를 산다거나 대한인국민회 등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8) Elaine H Kim *Asian American Literature-An Introduction to the Writings and Their Social Context*- Philadelphia Temple Univ Press, 1982, p 70

9) 해방 후에 이자를 붙여 되사기로 하고 이승만이 발행했던 국채*Korean National Bonds*에 당시 노동이민으로 와 있던 수천의 한국인들이 호응한 바 있었다 당시 한국 노동이민들은 일급 1달라도 안되는 수입을 몽땅 털어 그 국채를 샀으며, 또한 그것을 가보*family treasure*로 여기고 있었다. 그들은 그 채권들을 언젠가는 꿈에 그리던 조국으로 돌아갈 때 가지고 갈 여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Peter Hyun. *Man Sei! The Making of a Korean American* Honolulu.Univ of Hawai'i Press, 1986, p 153 >

10) New York.Charles Scribner's Sons, 1931

11) New York.Charles Scribner's Sons, 1937

12) Seattle and London Univ of Washington Press, 1987.

13) Honolulu Univ of Hawai'i Press,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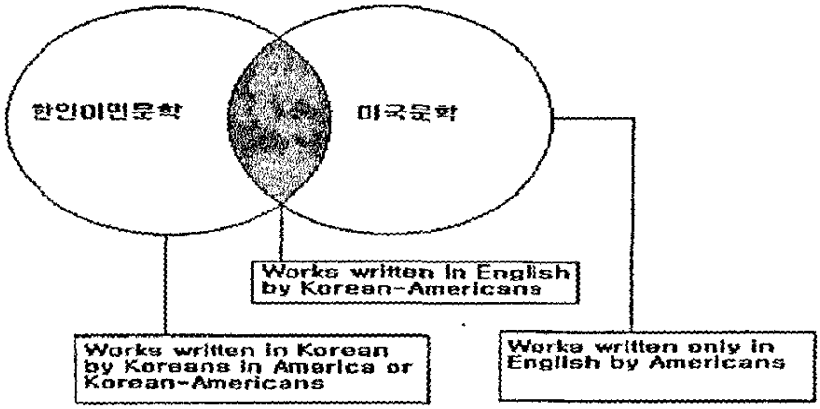
14) 이 점은 중국내 한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조규익, 『해방전 만주지역의 우리 시인들과 시문학』, 국학자료원, 1996 참조 >

있는 단체에 지지를 보내는 등의 행동은 이러한 욕구와 직결되는 일들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욕구가 쉽게 실현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쓰디쓴 집단적 좌절을 경험하곤 하였다. 단결을 통하여 국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당위를 부르짖는 자아와 욕구의 충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다른 자아, 개인이 지닐 수 있는 인간적 욕망을 표출하는 또 다른 자아 등이 문학작품에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 전개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재미한인들의 현실이나 상황이야말로 그들의 문학을 키워준 토양인 것이다.

재미한인들의 문학작품은 국문(한문 포함)과 영문 등 표기체계의 이원성을 우선적인 특징으로 지닌다. 관점에 따라 출발지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국문·영문의 작품들 모두가 한인 이민문학 즉 넓은 범주의 한국문학에 포괄될 수 있겠지만, 도착지인 미국의 입장에서는 영문의 작품들만 그들 미국문학의 한 부분인 이민문학*immigrant literature*에 속한다. 따라서 한인 이민문학과 *Korean-American literature*는 범주상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들이 아니다. 전자가 망명·이민·체류 등의 방식으로 미국에 머물던 한인들에 의해 쓰여진 국문과 영문의 작품들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미국 국적을 가진 한인 후손작가들에 의해 영어로 쓰여진 작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15]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한인 이민문학은 수백여편의 시가와 수십편의 소설 및 희곡, 평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본 발표에서는 한인 이민들의 자아를 생생하게 형상화했다고 생각되는 몇 작품의 영문소설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The Grass Roof*와 *East Goes West*를 발표한 *Younghill Kang*은 자식인 이민의 첫 세대에 속하는 사람이며, 이 소설들을 통하여 해방 전의 시대상과 재미한인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15) 조규익, 『해방전 재미한인 이민문학 • I』(월인, 1999), pp.40-42. 이 내용을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려내는 데 성공하였다. 이에 비해 *A Ricepaper Airplane*을 발표한 *Gary Pak*은 하와이를 무대로 지금도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는 현역 작가이고, *Clay Walls*를 발표한 *Ronyoung Kim* 역시 최근까지 활동하던 재미 한인문인이었다. 따라서 작가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해방전의 시기에 속하는 1인과 해방후 최근의 시기에 속하는 2인을 동시에 대상으로 했지만, 작품의 배경이나 시간대 만큼은 그들 모두 이민 1세대를 공통의 대상으로 삼은 셈이다. 이들이 전체 작품들에 비해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재미한인 이민문화의 표본과 같은 작품들[16]이라는 점에서 그로부터 도출되는 결과 역시 이민문학 전체에 대하여 보편성과 대표성을 지닌다고 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Ⅲ. 개인적 자아와 보편정서

1. 탈조국의 꿈, 그 좌절의 초상: The Grass Roof와 East Goes West의 Chungpa Han

*East Goes West*는 작자 *Younghull Kang*의 첫 출세작인 *The Grass Roof*의 속편격이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작자가 자신의 가면으로 내세운 주인공 *Chungpa Han*의 방황이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의 이야기들로 짜여져 있다.

원래 이름 姜鏞訖을 *Younghull Kang*으로 표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인공의 이름을 *Chungpa Han*으로 명명한 것 역시 다분히 상징적이다. '청파'란 '靑坡', 즉 푸른 언덕이다. '*Younghull*'의 'young hill' 역시 '젊은(푸른) 언덕'이다. *The Grass Roof*의 배경은 'Sung-Dune-Chi'로 되어 있다. 이것을 '송둔치'로 音讀할 수 있다면, 그 의미는 '(푸른) 소나무 우거진 둔치(물가의 언덕)'쯤이 될 것이다. 이 무대는 그 작품의 배경이면서 작가에게는 고유명사라기

16) *Kang*은 *The Grass Roof*로 창작문학에서 구겐하임상*Guggenheim Award*을 받았고, 이 작품은 불어 · 독어 · 유고어 · 체코어 등 10여개 국어로 번역 · 간행되었다. 특히 1937년에는 불어로 번역된 가장 좋은 책으로 선정되어 *Le Prix Halperine Kamnistry*를 수상하기도 했다 *East Goes West*도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는데, 예컨대 필리핀계 미국작가 *Carlos Bulosan* 같은 사람은 이 책에 대한 자신의 번안판이라 할 수 있는 *America Is in the Heart*(1947)를 내는 등 *Kang*은 이 책으로 많은 아시아계 미국 작가들을 고무시킨 바 있다
*LA*에서 태어난 *Ronyoung Kim*은 일부 학자들에 의해 최초의 진정한 *Korean-American* 작가로 인정받은 바 있다 그녀의 작품 *Clay Walls*는 현재 많은 대학들에서 아시아학 연구과정의 필독서 가운데 하나로 되어 있기도 하다
*A Ricepaper Airplane*은 *Gary Pak*이 1992년 그의 단편집 *The Watcher of Waipuna & Other Stories*를 발간한 이후에 발표한 첫 소설로서 UCLA 등에서 *Asian-American Literature* 과정의 필독서 가운데 하나로 읽혀지고 있다

보다 자신의 고향이나 고국을 표상하기 위한 提喩的 相關物로 선택된 보통명사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전반생과 후반생의 통합으로 주인공의 방황하는 삶을 마무리하여 보여주는 이들 두 작품의 내용을 약분한다면, *The Grass Roof*는 '송둔치에서의 생활'이, *East Goes West*는 *Chungpa Han*의 '신세계에서의 꿈과 좌절'만이 남게 된다. 그만큼 *Chungpa Han*은 작자의 진면을 오히려 잘 보여주는 가면이다. *Kang*이 뉴욕대학에서 만나 우정을 나눈 미국의 문인 *Thomas Wolfe*는 자신이 쓴 서평으로 유일하게 활자화된 글[17]에서 작가 *Kang*의 '삶에 대한 애정'과 '새로운 지식 및 경험들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갈증'에 찬사를 보냈으며, *Kang* 자신은 이것을 *East Goes West*에서 파우스트적 꿈*Faustian dream*으로 묘사한 바 있다.[18]

*Kang*은 반이민법*the Immigration Exclusion Act*(1924년)이 발효되기 직전인 1921년 간신히 미국에 도착하는데, 당시 그의 나이 18세였다.[19] 1903년 함경도에서 태어난 그가 자신이 속해 있던 양반가문의 관습을 중심으로 자신의 소년시절 작은 마을에서 겪은 경험들을 다룬 것이 *The Grass Roof*의 주된 내용이다. 뒷 부분에서는 편안했던 경험과 추억들로부터 탈출하여 서울과 일본을 거쳐, '새롭고 매혹적인 나라' 미국으로 떠나기까지의 모험들을 그려냈는데, 이러한 모험이나 경험들은 '진보적이고 도전적인' 젊은 영혼에게 닥칠 신세계에서의 사건들을 암시하는 복선이기도 하다. 어쨌든 *East Goes West*에서 주인공은 서구적 삶의 방식에 대한 집착을 통하여 전통적 관념에서 벗어나려는 의식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 말하자면 겨우 20대에 불과한 작가 *Kang*이 지니고 있던 현실인식이나 성향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그로부터 촉발된 적극적 실천으로 대변될 수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주인공 *Chungpa Han*은 *Kang*의 정확한 복사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서구 지향성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자신이 지니고 있던 문화적 유산이나 전통을 적극 배척하지는 않았다. 이 점은 *Kang*이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난 그 나이 또래의 식민지 젊은이가 범할 수도 있는 몰가치적이고 몰이념적 철부지만은 아니었음을 강하게 드러낸다. *Lady Hosie*가 이 작품에 대한 서평에서 말한 바와 같이 *Kang*을 비롯한 초기 재미한인 지식인들은 자국문화의 투철한 使節의식을 지니고 있었던 듯 하다.[20] 사실 *Kang*은 그 나름대로 자국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돈이나 물질, 힘으로 대변되던 당시 열강들의 특징과 달리 한국사람들만이

17) "Review of Younghill Kang's *The Grass Roof*" New York Evening Post April 4, 1931 5.

18) East Goes West, p.9.

19) 작품 속의 주인공 *Chungpa Han*은 이 점에서도 작자와 일치한다.

20) Lady Hosie "A voice from Korea" *Saturday Review of Literature* Apr. 4, 1931, p 707.Mr. Kang does not, I think, give a full account of American missionaries ···His book is a real contribution to literature and to our understanding of his country-men and women

지니고 있던 시에 대한 소양이나 세련된 지성을 그 자부심의 근거로 들었다. 이런 사실[21]은 그가 의식의 심층에 일종의 민족애를 감추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단서이기도 하다. *Suttilagsana*는 *Kang*이 청춘시절을 지낸 고향마을로부터 서양으로 떠난 데 대한 그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화나 변명이 바로 *The Grass Roof*의 중심주제라고 하였다.[22] 말하자면 그가 자신의 소설 첫머리에서 그토록 강하게 드러내고자 한, 풍부한 문화유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자기 합리화의 필요성에 직면했으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Kang*으로서는 도착지인 미국땅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그 나라의 문화나 가치관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표면적으로나마 자신이 떠나온 구세계적 문화나 민족적 정체성 등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작품 속에 간간이 보이는 자신의 옛 문화에 대한 비판은 사실상 새로운 문화체험에 바탕을 둔 것이며, 그것은 이 작품의 속편인 *East Goes West*의 내용적 전개에 대한 모종의 단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Katherine Woods*는 이 작품을 '말 그대로의 소설'이 아니라 *oriental yankee*를 만들어가는, 솔직한 기록이라고 하였다. 특히 *Kang*은 매우 성공적으로 미국화되었으며, 따라서 이 작품의 전편격인 *The Grass Roof*가 주인공의 어린 시절을 그려낸 자서전이라 한다면 이 작품은 주인공의 '미국경험들'을 이야기하기 위한 속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주인공이 동양적인 초탈함이나 학자다움 혹은 막연한 완벽성에 대한 추구 등의 일관된 자세를 지키고 있는 점과 정신이나 영혼의 면에서 잃고 싶지 않은 어떤 것을 잘 지켜 나왔다고 보았다.[23] *Kang*의 작품들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비록 부정적 전통의 과거 시간대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세계와 가치관을 추구하긴 했으나 여전히 내면적 측면에서는 구세계의 그것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Woods* 역시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말하자면 스토리의 복잡한 진행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의 정체성은 시종일관 잘 유지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인공이 미국에 지니고 간 것은 *American dream*이었다. 그는 낙원으로 이상화된 미국사회에 소속되어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그러한 노력 자체가 미국인들에게 우스운 것

---

21) *The Grass Roof*, p 320

22) Supattra Suttilagsana Recurrent Themes in Asian American Autobiographical Literature Dissertation. Bowling Green State Univ, 1986, p 19.
*Elaine H Kim*도 이 점에 대하여 "*The Grass Roof*는 한국과 한국인들의 묘사가 아니라 그것은 단순히 *Kang*이 한국을 떠난 데 대한 정당화(합리화)"라고 주장함으로써 *Suttilagsana*와 같은 견해를 보여주었다<*Asian American Literature-An Introduction to the Writings and Their Social Context*-. Philadelphia Temple Univ Press, 1982, p 34)

23) "Making of an Oriental Yankee-Younghill Kang's Study of His American Experiences Is a Lively and Revealing Venture in Autobiography", *The New York Times Review*, Oct 17, 1937

으로 받아들여지곤 하였다. 예컨대 미국소녀 *Trip*과의 로맨스를 통하여 미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느껴보려 했으나 그것마저 그녀의 냉담한 거부로 좌절되고 마는 등의 수모를 겪으면서도 미국사회에 진입하고자 애쓰지만, 그러한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역설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시 대다수의 이민들과 달리 구세계인 한국으로의 복귀를 포기하고 만다는 점이다.

그가 만나는 인물들 예컨대 절망적인 로맨티시스트 *Kim*이나 협소한 낙천주의자 *Jum* 등도 모두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모순적인 존재들이다. 그들 모두 *American dream*을 가지고 미국에 건너왔지만, 결국 그것은 현실화되지 아니한 채 꿈으로 남을 뿐이었다. 주인공 *Chunpa Han* 또한 실망이나 오해, 고독 등을 감내하면서도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열심히 *American dream*의 실현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발견하지 못한 채 좌절하고 만다. 현실과 욕망 사이의 메울 수 없는 거리를 방황하면서 꿈의 현실태를 찾아 분투해온 주인공에게 남겨진 것은 좌절한 몽상가의 이미지일 따름이다.

2. 구세계 복귀의 꿈, 그 방황하는 경계인의 초상:Clay Walls의 Hye Soo와 A Ricepaper Airplane의 Sung Wha

Ronyoung Kim 의 *Clay Walls*나 *Gary Pak*의 *A Ricepaper Airplane*은 구세계로부터 탈출한 주인공이 신세계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갈등 및 방황의 체험들과 함께 구세계로 귀환하고자 하는 욕망의 좌절 등이 잘 그려져 있는 작품들이다. 그것들의 특이한 짜임 또한 대부분의 이민문학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귀납적 구조이자 이민 작가들이 지니고 있던 관념상의 틀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형으로서의 표지를 지닌 작품들이다.

우선 전자를 보자. 이것은 1910년대 한인 이민 1세대의 투쟁과 좌절을 그린 작품이다. 작가는 이 작품을 "혜수편/전씨편/페이편"으로 나누어 놓았지만, 그것은 편의상의 구분일 뿐 주인공 혜수가 신세계에서 겪는 시련과 좌절이 작품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구세계에 대한 혜수의 처절한 귀환욕구는 초기 한인 이민들의 괴로움과 타율적 이민의 실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 작품을 혜수라는 주인공의 단순한 개인사로 볼 수만은 없고, 오히려 한인 이민사회에 관한 역사적 서술로서의 보편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혜수가 남편 전씨와 만난 것은 구세계가 안겨준 타율의 소산이었다. 그러나 그 후 신세계에서 아이들을 낳아 키우며 의식있는 여인으로 변모해가는 그녀의 모습은 신세계에 적응하기 위한 시도들이자 구세계로 복귀하기 위한 자발적 준비작업이기도 하였다. 계속되는 인종차별은 그녀가 지니고 있던 구세계로의 복귀 욕구를 더욱 부채질하

여, 결국 그 꿈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구세계에 귀환한 다음 목격하게 되는,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파괴된 구세계의 모습은 아주 생소한 모습으로 그녀에게 다가온다. 말하자면, 이전의 구세계가 상당히 낯선, 부정적 의미의 신세계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 이 시점에서 그녀가 그토록 탈출하고자 노력했던 신세계는 복귀하려는 그녀를 다시 받아들일 만큼 너그럽고 새로운 구세계로 바뀌어 있음을 깨닫는다. 그러나 지난날의 신세계(지금의 구세계) 미국으로 되돌아온 주인공은 그 이전보다 훨씬 가혹한 시련을 겪는다.

작품의 후반에서 작자는 주인공의 딸 페이를 전면에 내세워 한인 이민들의 생활과 그들의 배경적 상황을 구성하던 한·미·일간의 역사적 사건들을 작품 속에서 엮어나간다. 마지막 부분에서 작자는 남·북한으로 분단된 구세계의 현실을 제시하고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없어 구세계로의 귀환을 포기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신세계에 눌러앉을 수밖에 없는 한인 이민들의 강요된 선택을 결론으로 내놓는다. 즉, 혜수가 몸 담고 있던 진보개혁한인회를 남한 정부에서는 공산조직으로 낙인 찍었으므로 그녀는 남한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다른 것은 다 놓아버리면서도 구세계 귀환의 거점으로 삼고자 붙잡고 있던 곽산의 땅마저도 공산치하인 북한에 있기 때문에 그녀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역설적인 상황을 제시하였다. 작자는 주인공을 통하여 구세계를 구성하던 남북한으로부터 모두 배척받던 한인이민들의 곤경과 역사의 아이러니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작자는 또한 페이의 입을 빌어 "엄마 순 조선사람이 되는 것도 쉽지 않네요 뭐." 라고 말하게 함으로써, 혜수의 심경을 대변하게 한다 페이의 이 말 속에는 "미국사람 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역설적 내포 또한 들어 있다. 말하자면 구세계에의 복귀도 신세계에의 적응이나 동화도 불가능하거나 최소한 '쉽지 않다'는 한인 이민들의 처절한 깨달음을 이 말은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주인공을 포함한 한인이민들은 운명적인 경계인*marginal man*인 셈이었다.

*A Ricepaper Airplane*에서 주인공 김성화는 구세계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신세계에 뿌리를 내리지도 못한 채 이민으로서의 성공적이지 못한 삶을 마감한다는 점에서 *Clay Walls*에 그려진 혜수의 모습과 같다. 죽음을 앞둔 주인공 김성화가 그의 조카뻘인 용길을 만나 자신의 험난했던 역정을 술회하는 형식으로 스토리를 엮어나간 것이 바로 이 작품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김성화 자신의 개인사만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김성화의 삶이 대표하는 식민치하 조선의 비극적 상황, 초기 노동이민들의 참상, 일제에 대한 저항과 사상적 방황 등 복합적 요인들이 하와이 도착을 전후한 김성화의 개인적 체험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작은 규모의 역사적 기술인 셈이다.

작품 속의 다양한 화소들이 김성화의 기억과 시간순차에 의해 파노라마식으로 펼쳐지고 있지만, 그것들을 관통하는 정신은 급진적 반항아 김성화의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집착'이

다. 반드시 조국에 돌아가야만 한다는 그의 욕망은 그를 압제하는 세력에 대한 반항과 반발로 표출된다. 일제에 의해 고향과 가족들이 풍비박산나고, 결국 중국을 발판으로 하던 항일투쟁을 거쳐 하와이까지 오게 되었으나, 일본인에서 미국인으로 바뀌었을 뿐 그를 압제하는 세력이 여전히 건재하는 상황은 김성화 개인에게 참담한 비극으로 부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비극은 개인사에 국한되지 않고 민족 전체의 운명으로 확대해석 되도록 작품 전체가 긴밀하게 짜여있는 점이 흥미롭다. 표제로 나와있는 'A Ricepaper Airplane'은 작품 속의 금강산이나 압록강과 함께 조국에 대한 그리움, 향수, 귀향 욕구 등을 표상하는 또 하나의 상관물이다.[24] 그러나 금강산이나 압록강은 현실 속의 그것들인 반면, 'a ricepaper airplane'은 주인공의 '비현실성 · 몽상 · 낭만성 · 과격성'만을 부각시키는 상징물이다. '한국→중국→일본→하와이'로 전전해온 낭만적 혁명가로서의 김성화, 그러나 하와이에서 다시 조국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꿈은 실현되지 않은 채 결국 생을 마감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종이비행기는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존재의 비극성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소재다. 그러한 비극적 휴먼스토리가 바로 이 작품이다. 이 과정에서 그는 국가체제에 대한 반성적 인식을 갖게 되고 급진적인 사회주의자로 변신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변신이 객관적이고 차분한 성찰을 통한 것이기보다는 감정적이고 낭만적인 정열로부터 이루어진 것임을 작가는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면적으로 그가 지니고 있던 순수성에 대한 찬양의 의도가 작품의 내면에 강하게 전제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이 작품의 창작시점(혹은 기록시점)은 해방 후이다. 그러나 이야기 속 서술자의 발화시점은 1928년 2월이다. 이 작품이 소설이면서도 단순한 소설이 아닌 것은 주인공의 입을 빌어 초기 이민사회의 참상과 그에 결부되는 민족적 비극을 상세히 그려나간 미주 한인이민사의 첫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관점으로만 본다면, 이 이야기는 타율적 상황에 의해 조국으로부터 쫓겨난 뒤 찾아온 해외에서 조국을 그리워하다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칠 수밖에 없던 초기 이민들의 마음과 생활을 집약적으로 나타낸 기록이다. 비록 타율에 의해서이긴 하나 주인공 김성화가 찾아온 미국(하와이)은 그에게 신세계였다. 그러나 그에게 신세계란 구세계로 복귀하기 위해 잠시 체류하는 곳일 뿐이었다. 그러나 구세계로의 귀환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끊임없는 투쟁을 통하여 그것을 얻어내고자 한다. 이런 과정에서 그는 구세계로 돌아가지도 못한 채, 삭막한 신세계에서 참담한 패배자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25]

---

24) 이 점은 우리의 전통적인 것들을 소개하고 나열한 *The Grass Roof*의 주인공이 탈조국, 탈향의 욕망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점과 대조적이다.

25) 조규익, 『해방전 재미한인 이민문학 I』, p28

Ⅳ. 맺음말

이상으로 해방 전 문인인 *Younghull Kang* 의 작품 둘과 해방 후 두 문인(*Ronyoung Kim/Gary Pak*)의 작품 둘을 대상으로 그것들에 표상된 자아의 모습들을 살펴 보았다. 전자들에는 식민조국을 탈피하여 신세계에 뿌리를 내리고자 하나 결국 미국 주류사회의 굳게 잠긴 빗장을 여는 데 실패하는 주인공의 처절한 모습이 사실적으로 형상화 되어 있다. 후자들에는 그 반대로 잠시 머물고 있던 신세계를 탈출하여 구세계로 복귀하고자 하나 그 또한 실패함으로써 좌절의 늪에 함몰하는 자아가 형상화 되어 있다.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탈조국의 염원이나 조국에 대한 집착은 서로 상반되는 지향성이다. 그러면서도 경계인*marginal man*이라는 점에서 이들 모두는 하나로 묶인다.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닌 어정쩡한 존재로서의 경계인적 자아는 이민 초기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인들의 집단무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Younghull Kang*의 두 작품은 그 자신의 자서전들이라고 할만큼 그의 생애와 흡사하며 그에 따라 그가 부조해낸 *Chungpa Han* 또한 작자 자신의 복사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이 작품들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The Grass Roof*에서 작자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지리하게 묘사·설명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주인공의 모색과정을 병행시켰다. 따라서 이 부분은 서양인들에 대한 한국문화의 소개라는 한 측면과 작자 혹은 주인공의 서구 지향성에 대한 합리화로 설명될 수 있다. 이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바로 두번째 부분인 *East Goes West*다. 이 부분에서 주인공은 닫혀있는 서양의 문을 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결국 실패자로 남게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구세계인 조국으로 복귀할 의욕 또한 전혀 없다. 오히려 조국을 더 철저히 버리고 미국사회에서 미국인이 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해보려는 듯한 '망상가'의 이미지만 독자들의 마음속에 남기고 마는 것이다. 어쨌든 이 작품들의 자아는 작자 자신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이민들이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정체성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Gary Pak*이나 *Ronyoung Kim*의 작품들에 등장하는 김성화나 혜수 등도 결국 좌절한다는 점에서는 *Younghull Kang*의 *Chungpa Han*과 같으나, 그 지향성이 정반대라는 점에서 작자들을 포함한 또 다른 이민들의 자아를 대변했다고 볼 수 있다. 죽는 순간까지 종이비행기라도 만들어 타고 조국에 돌아가려는 꿈을 버리지 못하는 김성화나, 꿈에 그리던 조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쫓겨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남북 분단으로 인해) 앞으로도 어쩔 수 없

이 조국을 포기해야만 하는 혜수는 1세대 이민들의 서글픈 현실이나 보편적 정서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1세대의 한인 이민들 가운데 진정으로 탈조국의 꿈을 가졌던 부류는 *Younghill Kang*과 같은 지식인 이민들이었을 것이고, 조국에 돌아갈 꿈으로 미국사회에 뿌리 내리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신세계에서조차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던 대부분의 노동이민들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정반대로 나타나는 자아들의 양상은 이민 1세기가 지난 지금이나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한인 이민들의 두 모습이다. 물론 이런 현상은 이 작품들 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 다른 장르에도 같은 양상으로 나타난다.